

“신한국건설에 과학기술인 헌신”

현승중총리, 과총주최 과학기술인신년조찬회서 당부
 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과학기술계인사등 5백여명 참석



◇과총이 1월8일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한 현승중국무총리 초청, 93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조찬회에는 과학기술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은 김시중과총회장대행의 개회인사를 경청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인사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8일 상오 8시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현승중국무총리를 초청, 1993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조찬회를 개최했다.

민관식명예회장, 김동일상임고문, 김진현과기처장관, 조완규교육부장관, 한봉수상공부장관, 송연중체신부장관 등 관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조찬회는 이걸삼사무차장의 사회로 정조영상임부회장의 주요인사 소개에 이어 김시중과총회장대행의 개회사, 현승중총리의 격려사가 있는 다음 김진현과기처장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기원하는 건배제창순으로 진행됐다.

김시중회장대행은 이날 개회인사를 통

해 『올해는 지난 5년간 제6공화국이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신한국」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이끌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 해』라고 전제하고 『차체에 우리 5백만과학기술인들도 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 국가과학기술력을 고양하는데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큰 기여를 해야할 소명의식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회장대행은 이어 회담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기술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도약과 단합을 기약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총도 명실공히 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으로서 5백만 과학기술

인의 대변자적 역할수행은 물론 권익신장을 통한 사회적인 지위향상에 온 정력을 쏟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재 진행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현승중국무총리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국력의 바탕은 이념과 정치대신 경제력이며 경제력의 뿌리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전제하고 『21세기에는 한국이 반드시 과학기술 선진G7국이 되어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승중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경공업분야의 생활용품기술과 중공업분야의 조립·가공기술은 팔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정작 산업발전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기술과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우리만의 고유기술」이 없이 대부분의 기술은 선진국의 모방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모방단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특정기술 특정분야에서만 독자적인 선진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조찬회에는 서상목민자당제2정책조정실장을 비롯 정필근 최원지 박우병 김재겸의원등 국회의원 다수, 오명 '93대전EXPO 조직위원장등 정부관계자와 박진호과기처차관 권갑택기획관리실장 이종원연구개발조정실장 홍재희원자력실장등 과기처 관계관, 권이혁 안경모 최종완 이관 이상희 최순달 정근모씨등 전직장관, 박태원인하대명예총장 이해성한 양대총장 서정욱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천성순한국과학기술원장 이상수한국광학회 회장등 학계·연구기관대표 및 과총산하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했다.

4월에 「전통과학국제심포지움」

과총주최, 29·30이틀 롯데월드국제회의실에서
대전엑스포'93 행사일환 노벨상수상자 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4월29,30 양일간 잠실 롯데월드 국제회의실에서 「전통과학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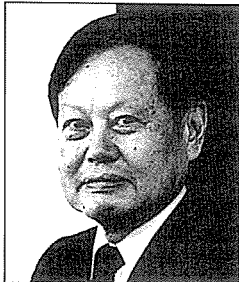
대전엑스포'93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될 전통과학국제심포지움에는 중국출신의 C.N.Yang 박사(홍콩 중문대 물리학과

다.

이 심포지움은 첫날인 29일에는 한국의 국어대 박성래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Nathan Sivin 교수의 「중국의 전통과학」, 미국 하버드대 Addehamid I. Sabra교수의 「이슬람의 전통과학」등의 발표에 이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Abdus Salam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이어서 둘째날인 30일에는 미국 인디애나대 Edward Grant교수의 「서양의 전통과학」, 멕시코대의 Juan Jose Saldana교수의 「중남미의 전통과학」그리고 성신학원 전상운이사장의 「한국의 전통과학」에 대한 발표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Chen Ning Yang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은다음 전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 度澤宗교수, 일본 가나가와대 Shigeru Nakagama교수 등 국내외학자 7명이 종합토론을 벌이게 된다.



◇ 4월에 과총주최로 열릴 전통과학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중국출신 「양」박사(위)와 파키스탄출신 「살람」박사



교수)와 파키스탄출신의 A.Salam박사(유네스코 국제이론물리센터소장)등 2명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비롯 해외 저명한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신과학운동사조 특히 현대과학문명을 비판적시각에서 고찰하는 선진국의 저명 과학자와 높은 수준의 전통과학기술을 보유한 개도국의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전엑스포 '93의 주제 「새로운 도약의 길」에 대한 부제로서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조화」를 테마로한 논문발표와 토론을 벌이게된

세계한민족과학기술共同協총회 8월개최

과총,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서 확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27일 타워호텔에서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199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개최 ▲남북민간과학기술자대표회의 개최 ▲남북한을 위시한 제일민단 및 조총련계 과학기술자와 해외동포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하는 '93일본 국제과학기술학술회 개최 ▲남북교류기반구축사업등을 확정했다.

미국을 비롯 캐나다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독립국가연합 중국등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는 8월2일부터 7일까지 서울서 개최 예정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는 '94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북한의 공동협의회사업 동참 유도방안등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

남북한 민간과학기술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남북민간과학기술대표자회의를 한국의 과총과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관으로 개최하고 '93일본국제과학기술학술회를 일본 동경에서 제일한국 과학협과 제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북교류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91년부터 수행해 온 조사연구사업을 올해에는 기초과학등 7개분야의 남북한 비교 분석연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신규로 과학기술용어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오는 12월중에 개최되는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는 지난 90년 4월17일 민간의 다양한 남북과학기술교류 욕구를 수렴하고 과학기술분야 대북교류제외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기위해 과학기술관련학계, 연구계 및 유관단체 인사 3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율기구이다.